統合과 接合

—그 구분의 일반기준 및 그 적용: 국어 보조동사 서설—

박 형 달
(서 울 대 학 교)

오래전 부터 서양의 傳統文法에서는 有意的單位들의 모임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그 모임의 類型에 따라 統辭論과 造語論으로 나눔으로써, 直觀的인 해결을 모색해 왔다. 국내학계에서도 일찌기 許雄(1966)에서 合成語와 統辭的 構成과를 구별할 수 있는 客觀的인 기준을 세움이 어렵고, 派生法의 接辭의 뜻의 파악 또한 어렵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

André Martinet는 그의 논문 "Syntagme et Synthème"(1967)에서 전통문법의 直觀을 客觀化하고 接合(synthème) 곧 合成語 및 派生語와 統合(syntagme) 즉 單素(monème)들의 자유로운 결합과를 定義·區分하고 실제연구상의 작업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Mortéza Mahmoudian은 "A propos de syntagme et synthème"(1975)에서 Martinet의 정의가 갖는 射程과 限界를 검토하고 이를 더 精密化한 바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統合과 接合을 구분짓는 一般的 基準을 요약하고[1], 이어서 국어라는 언어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의 接合중에서 특히 소위 補助動詞를 接合과 統合의 구분기준을 따라,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統合과 接合

언어기호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결합이므로, 單素는 음성적표현과 의미적내용을 갖춘 최소의 單位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다음의 1)의 複合體와 2)의 複合體는 다 같이 하나 이상의 單素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i) 꾸ㅁ(추ㅁ), (ii) 놀음(놀이), (iii) (하)ㄹ뻔(도)하(였다),

(iv) (하)ㄹ 수(도) 있(다), (v) 막—걸—리(막—잡—이), (vi) 꽃—꽂—이

(2) (i) 먹—였(좋아 해—ㅆ), (ii) 잘 뛰(다)(매우 좋아하(다)), (iii) (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모든 單位는 그것이 示差적이건 表意적이건 보다 큰 單位안에서의 選擇의 單位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單素의 認知는 문장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예들을 문장속에 집어넣어 보면, 각 복합체의 구성요소들을 선택함에 있어 話者가 부딪치게 되는 制約 또는 自由를 곧 파악할 수 있다. 가령 두 對話者가 꿈에 관한 이야기를

[1] 이 요약은 Martinet(1967a;1971) 및 Mahmoudian(1975)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다가 한 사람이 "그것은 좋은 꿈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꾸"를 선택한 다음엔 "ㅁ" 하나 밖에 선택할 수 없다. 또 "(~)을 (를)・・・다"라는 文脈에서도 (하르)"뻔"을 선택한 다음엔 "해"(="하")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을 하르뻔했다". 또 "-ㅁ", "-해-"의 존재는 이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하다. 선택이란 일반적으로 여럿중에서 하나를 뽑음을 말하며, 또 그 여럿은, 만일에 그 중에서의 선택이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치 않을 때에는,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럿이다. 따라서 "-ㅁ" "-해-"는 선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文脈에서는 독립된 單位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선택상의 제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의 (i), (v), (vi)의 복합체가 다음 (3)의 문맥(물론 文外의 상황도 포함)에 놓일 때 나타난다.

(3) "좋은 ・・・(이)다".

한편, (2)의 복합체((iii)은 제외)를 (4)의 문맥(・・・)에 집어 넣으면, 그 복합체의 각각의 구성원은 모든 요소들과 交換될 수 있다. "-ㅆ"은 "-겠", "-였었" 등과 交換되며 "잘"(매우)는 "빨리", "천천히", "많이"("더", "굉장히", "아직")등등과 交換되며, "먹-" "뛰-"는 "사-" "잡-"등과 交換된다.

(4) "(~)을(를) ・・・다.

"먹-", "뛰-"에서 보는 이러한 規則性("먹-"이 "뛰-" "사-" "잡-"등과 交換되고 "-ㅆ-"이 "-겠-" "-였었-"등과 交換되며, 이 양편의 어느 요소도 예외 없이 서로 結合될 수 있다는)은 (1)의 "꾸-", "꽃"이 (4)의 문맥(・・・)에 놓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꾸", "꽃"과 같은 單素들이 (3)의 문맥에 놓일 때에는 이러한 規則性은 없다. 이제 (1)의 복합체((iii), (iv)는 제외)를 (4)의 (~)과 비교해 보면 이들 역시 훌륭히 交換됨을 알 수 있다. "놀음을 좋아했다", "막걸리를 먹었다", 등등.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1)(=接合)과 (2)(=統合)는 아주 다른 두 類型의 單素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들을 구별짓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Martinet의 답은 이러하다: 모든 言語記述은 한 언어에서 가능한 發話體가 무엇이며, 單素들의 어떠한 結合이 배척되는가를 찾아냄을 목적으로 한다. 달리 표현하면, 言語分析者는 화자가 이용하는 單素結合의 일반적인 규칙과, 그가 받게 되는 制約을 記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單位는 선택을 전제로 하므로 말사슬의 한 토막안에는 선택의 수만큼의 단위가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토막(꾸ㅁ)이 "좋은 꾸ㅁ이다"란 문맥에서는 하나의 單位가 되고 "(꿈을) 꾸었다"란 문맥에서는 두 單位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문맥의 압력이 어떤 선택에다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된다. 唯一(또는 單一)선택(choix unique)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뜻은 복합체(=接合)가 하나의 單位로서의 態度를 취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 복합체는 하나의 單素와 똑 같은 환경에 나타나며, 單素와 꼭 같은 결합상의 規則을 따른다. 이와 같이 單一한 單素와는 달리, 그것이 복합적인 요소의 집합이란 점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統合과 같은 結合의 規則性이 없다는 점에서, 接合은 單一한 單素와 統合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單素(=接合의 구성원)가 모여 接合이 되는 것은, 화자가 單素들의 자유로운 결합인 統合(syntagme)을 수평의 축(=統合의 축)위에다 계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統合的活動(=結合

또는 擴大)과는 구별되는, 수직의 축위에다 同(類의)合(一體)(paradigme)의 成員들의 수를 늘려가는(예컨대 新語創造) 同合的活動(=創造 또는 확대(Martinet 1968:148; 1975:180)에 바탕을 둔다.

이와 같은 統合/接合 구분의 결정적인 특질은 각 개별어의 구조와는 관계 없이 일반적인 고려에서 출발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 물론 특정언어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다음에서 우리는 統合/接合을 구분짓는 일반적인 기준 : 選擇, 同合的擴大, 單位로서의 태도를 차례로 살펴나가기로 한다.

2. 選擇(또는 唯一選擇)

앞서 잠시 비쳤듯이, 선택이란 한 同合(paradigme)의 成員들을 연결하는 交換(commutation)관계이다(Martinet 1967b). 선택에 의하여 한 同合의 成員의 각각은 다른 成員을 물리치고 즉 代置하여 하나의 文章안에 나타나며 만약에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ϕ(zéro)에 의하여 代置됨으로써, 文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선택은, 그 이면에, 代置 또는 抹消라는 두가지 내용을 가진, 同合의 成員사이를 맺는 交換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單素의 층위에서 볼 때 선택은 다음의 사실을 내용으로 한다(Mahmoudian 1975) :

(5) 文의 "시니피앙"의 한 조각은 代置 또는 抹消될 수 있다,
(6) 이와 같은 말소 또는 대치는 文의 뜻에 변화를 가져온다,
(7) 이러한 作業은 文의 構造를 바꾸지 않는다. 즉,
  (i) 그 결과는 하나의 文이다.
  (ii) 單素들의 됨됨이와 관계는 作業 전이나 후나 그대로다.

이 정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노래의 선택이 단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의 환경에서 놀- 또는 -애을 지워버리면 위의 (7)의 (i)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즉 놀-이나-애이나 다 독립된 선택이 아니다 : *"좋은 노이다", *"좋은 래이다". 그러나 막-걸-리는 그렇지 않다. 같은 환경에서, -걸-은 -잡-과 交換된다 : "좋은 막걸리이다", "좋은 막잡이다". 눈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좋은 눈물이다"/"좋은 눈이다", "좋은 물이다". 이렇게 볼 때 노래는 선택이라는 기준에서 눈물이나 막걸리와는 다른 것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接合을 唯一選擇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개의 토막중에서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예상할 때(예컨대 추←ㅁ), 또는 두개중의 각각이 서로가 서로를 예상할 때(예컨대 놀↔애), 이 두 토막은 接合을 구성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核에 붙는 꼭 필요치는 않은 요소라고 정의되는 從屬요소는, 그 核을 예상하므로(예컨대 冠形語→名詞), 이렇게되면 統合에 있어서의 從屬요소와 接合에 있어서의 그 구성요소인 接合單素(monème conjoint)의 구별이 안되게 된다. 게다가 또 종속요소 가운데는 의무적인 것도 있다. 예컨대 "그→분"도 역시 唯一選擇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Martinet가 지적한 바와 같이(Martinet 1968: 299; 1975:201) 선택이란, 統合/接合을 구분하는 중요한 作業上의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설명상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3. 同合的 擴大

單素들의 모임(=接合)이 동합적확대에 기인한다고 함은, 統合／接合의 구별에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15의 "內部관계"에서 다시 설명할 것임).

4. 單位로서의 태도

統合／接合의 二分法의 참된 기준은 結合의 幅(latitude combinatoire)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接合은 다른 單素와의 관계에 있어서 單位로서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單位들의 結合으로서의 統合과 구별되는 것이다. 한 單素의 結合의 幅은 세가지 類型으로 가를 수 있다: 上位, 대등, 下位로. 따라서 한 單素의 結合의 幅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8) 上位의 幅:
  (i) 한 單素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單素(들)(=核)
  (ii) 한 單素가 單素(들)(=核)과 맺을 수 있는 관계(들),
(9) 대등의 폭:
  (i) 한 單素와 대등관계에 설 수 있는 單素(들)
  (ii) 대등표지,
(10) 下位의 폭:
  (i) 한 單素가 下位요소로서 인정하는 單素(들)
  (ii) 한 單素와 下位요소들 사이에 인정되는 관계(들).

上位의 幅이란 한 單素(1)가 그 보다 등급이 높은 요소(2)와 맺는 관계이며(예: 집(1)의 개(2)), 下位의 폭은 한 單素(1)가 그보다 등급이 낮은 단위들(4)과 맺는 관계이고(예: 그(4) 집(1)), 마지막으로 대등의 폭이란 같은 등급의 單位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이다(예: 집(1)과 사람(3)). 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그림 1과 같이 되고(Mahmoudian, 1975:55), 單素를 서술적單素와 비서술적單素로 나누어 그 관계의 類型까지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된다(Martinet, 1973; 1966; 1975):

두개의 토막(그중 하나는 단위들의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단위)의 통사적 태도가 같은가 다른가를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우선 結合의 幅을 알고 나서 다음에 그 폭들을 비교해야 한다. 이 비교를 통해서 두개의 토막의 結合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 일치하며,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알게 된다. 다음에서 우리는 單位들의 모임으로서의 接合과 하나의 단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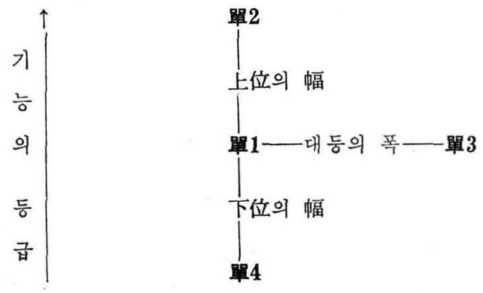

그림 1. 한 單素의 결합의 폭의 예: 한 單素(=單1)가 核(=單2), 대등요소(=單3) 및 종속요소(單4)와 맺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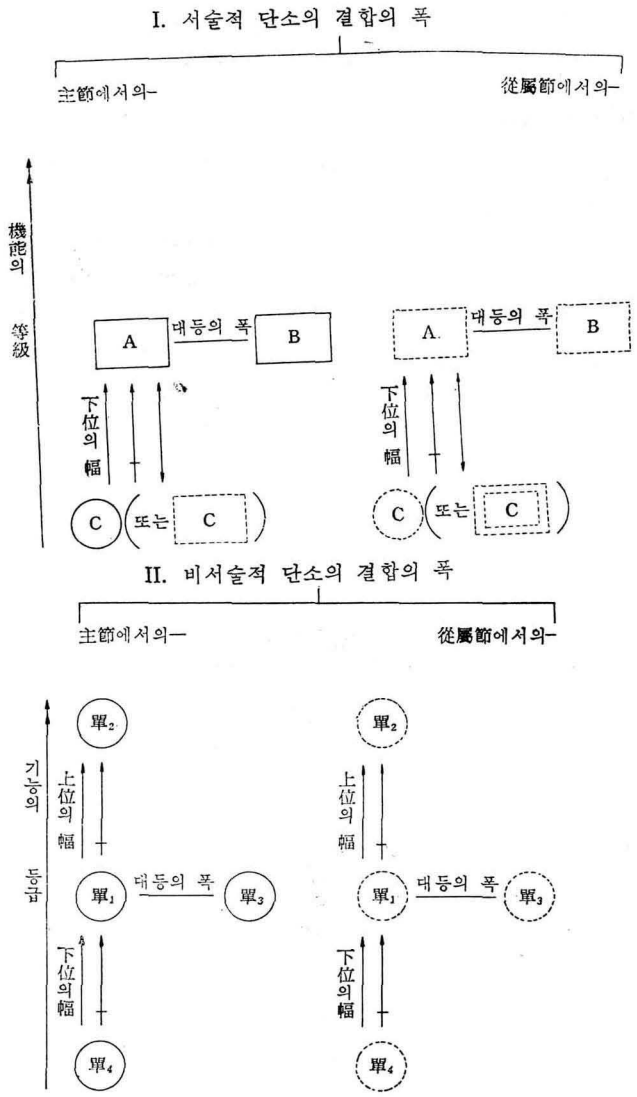

그림 2. 결합의 폭와 도식. 주절에서의 서술적 단소(=A)와 종속절에서의 서술적 단소(=A)가 각각 대등요소(=B 또는 B), 하위요소(=C, C C 및 C)와 맺는 제 관계, (A↔B : 필수적, 상호규정의 관계 ; A→B : A는 B를 예상하나 B는 A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의적 관계 ; A⟶B : B가 특수한 어휘적 또는 부류적 의미를 가질 때 꼭 A를 예상하는 관계 ; A—B : 대등관계). 그리고 주절의 어떤 單素(=單1)와 종속절의 어떤 單素(=單1)가 각각 그 核(=單2)와 單2, 대등요소(=單3과 單3) 및 下位요소(=單4)와 單4와 맺는 제관계 (⟶, ⟶).

주의 : 위 그림에서 二重의 점선표시(=C)는 종속절의 서술어를 A 또는 B로 표시함에 대하여 그 종속절의 또 종속절의 서술어를 표시함

서의 單素를 그런 관점에서 비교하고 이어서 역시 단위들의 모임으로서의 統合과 하나의 단위로서의 單素를 역시 같은 관점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5. 接合과 單素(의 比較)

(1)의 예에서 "꾸ㅁ"이라는 토막은 "애기"라는 토막과 같은 結合의 폭을 갖는다. 둘 다 서술어와 主語, 目的語, 補語 관계를 유지하며 (**꿈이, 애기가**, 크 다, **꿈을, 애기를**, 보다, 그는 **꿈이** 크다, 어른이 **애기가** 됐다), "-이다"와 합하여 복합서술어가 되기도 하고(그것은 **애기, 꿈**이다), 기능표지를 가진 종속 요소가 된다(**애기와** 논다, **꿈에서** 봤다). **애기, 꾸ㅁ**은 (3)의 문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지니면서 같은 대등요소(=명사)와 같은 대등표지를 인정한다(예 : 그것은 좋은 애기거나 소년이다 ; 그것은 좋은 꿈이거나 징조이다). 또, 같은 문맥에서, 같은 종속요소들을 인정한다 : 冠形詞(modalité=grammatical modifier) 이, 그. 저, 새, 등. 이를 도표화하면 :

(11)

	애 기	꾸 ㅁ
상위의 폭	=	
대등의 폭	=	
하위의 폭	=	

놀-음, 막-걸-리, 꽃-꽂-이, 를 조사해도 이들의 결합의 폭이 單一한 單素의 결합의 폭과 같음을 보여준다.

6. 統合과 單素(의 比較)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들 복합체(꿈, 막-걸-리, 등)가 統合과 구별되는 接合임을 증명키에 불충분하다. 이를 확실히 증명하려면, 統合이라고 볼 수 있는 單素들의 모임이, 위의 복합체와는 전혀 다른 결합의 폭을 가졌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다음에서, (2)에 나온 토막들의 모임인 "먹-었(다)"와 "잘 뛰(다)"의 결합의 폭을 같은 문맥에 나타날 수 있는 "먹(다)"와 "뛰(다)"와 각각 비교해 보면, 먹(다)와 먹-었(다)가 같은 결합의 폭을 가진 반면, "뛰(다)"와 "잘 뛰(다)"는 上位의 폭이 같으면서 擴大(expansion)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음 그림에 요약하면 :

	(12)		(13)	
	먹(다)	먹-었(다)	뛰(다)	잘 뛰(다)
上位의 폭	=		=	
대등의 폭	=		≠	
下位의 폭	=		≠	

그림(12)는 "먹(다)"와 "먹-었(다)"가 그 下位의 폭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따지고 보면, **먹-** 에다 **-었-**, 또는 **-겠-**을 붙임으로써 먹-었-, 먹-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고려치 않은 것은, 그 사실이 統合／接合의 구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結合 가운데는 閉鎖的인 構成(closed construction. Bloomfield 1933: §12, 11.)이 있어서, 接合이라고 인정되는 토막들의 모임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다)가 **엿-**, **깔-**, **돋-**, **낮-**, 등을 앞에 붙여 가질 수 있음에 반하여, **얕보**(다)는 이들 요소를 그 이상 앞에 붙여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림(13)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만 들면 : **잘** 뛰(다)는 뛰(다)가 인정하는 거의 모든 擴大를 인정하나(14의 (1)참조), **잘** 만의 擴大요소는 하나의 뛰(다)의 확대요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14의 (2)참조).

(14) (i) 애기가 뛴다 : 애기가 잘 뛴다
애기가 뜀을 뛴다 : 애기가 뜀을 잘 뛴다
애기가 마당에서 뛴다 : 애기가 마당에서 잘 뛴다
애기가 지금 뛴다 : 애기가 지금 마당에서 뛴다
애기가 뛰고 앉는다 : 애기가 잘 뛰고 (잘) 먹는다

(ii) 애기가 매우 뛴다 : 애기가 매우 잘 뛴다
애기가 여간 뛴다 : 애기가 여간 잘 뛴다
애기가 빨리 그리고 뛴다 : 애기가 빨리 그리고 잘 뛴다

이는 곧 "接合=單位로서의 태도를 가진 복합체"라고 하는 정의가, **꿈ㅁ**, **막-걸-리**, **꽃-꽂-이**, 와 같은 토막의 모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며, 그것들이 **잘** 뛰(다)類의 통합과 구별되는 것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의 定義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에서 행한 검토, 즉 "接合의 결합의 폭=單素의 결합의 폭"이며 "接合(=單素)의 결합의 폭 = 統合의 결합의 폭" 여부를 알기 위한 검토는 (11)의 **꿈**과 (12)의 **먹-었**(다)를 구분하지 못했다.

또, 接合을 單一單素가 나타나는 문맥에 나타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정의한다면, **核+종속요소**로 이루어진 統合 역시 核만이 홀로 나타나는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예 : **나는 집에 가ㄴ다** : **나는 가ㄴ다**). 그렇게 되면 統合/接合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7. 單位로서의 태도 (계속)

單位로서의 統辭的 태도(=하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토막이 單一한 單位와 같은 통사적 태도를 취한다는)라는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해서 첫째로는 그 成分상호간에, 둘째로는 그 성분과 외부성분간에,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는 일이 흔히 있다.

(15) 內部관계 : 복합체의 성분상호간의 관계
(i) 그 관계가 不變이거나,
(ii) 그 관계가 바뀔 수 있을 때에는 위의 (8)—(10)에 따라서 여러 관계가 認知될 수 있다.

(16) 個別관계 : 각 성분 의외부성분과의 관계(위의 (8)—(10)에 따르는 관계 : 上位의 폭, 下位의 폭, 대등의 폭).

8. 內部 關係

內部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개의 복합체 **그 사람**과 **숫처녀**는 같은 태도를 취한다. 두 경

우에서 모두 한 核(**사람**과 **처녀**)과 한 종속요소(**그**와 **숫**)를 각각 認知할 수 있다. 성분들은 두 경우에서 모두 단 하나의 관계(=한정관계)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숫처녀**의 차이를 관계의 不變性이란 기준을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꾸ㅁ, 막-걸-리, 꽃-꽃이, 잘** 뛰(다)의 차이도 잠시 들여다 보면 그 기준으로는 증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5)의 (ii)의 관계의 多面性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기준도 統合/接合의 구분을 짓는데는 충분한 기준이 못된다. 관계의 多面性은 統合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다. 接合에도 역시 관계의 多面性은 있다. 예컨대, 국어의 **밥물**(밥을 지을 물; 밥을 끓일 때 부글 부글 넘는 물과 물밥(굿을 하거나 물릴 때에 귀신을 위해서 던지는 물에 조금 말아 놓은 밥)에서 첫째 예의 **밥물**의 核은 **물**이고 종속요소는 **밥**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물밥**에서는 그 관계가 바뀌었다(종속요소였던 밥이 核이 되고 核이던 **물**이 종속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接合이라 하는 이유는, 그 接合의 成分중의 하나(=종속요소)가 그 결합의 폭의 거의 전부를 잃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속요소에다 어떤 文法적 한정요소(modalité)도 붙일 수가 없다. ***그 밥-물**은 **그 밥의 물**이 아닌 것이다.

또 接合중에는 생산적인 것이 있다. 이는 接合의 구성원이 각각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갖추고 있고, 또 그 구성원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統合의 구성원에 있어서처럼)가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接合을 때로 同合적 擴大 또는 創造라 부르는 일이 있다. 그런데, 接合을 非統辭적인 특징을 가졌다고 정의하면(=內部관계가 없다고 정의하면), 이러한 생산적인 接合은 接合에서 제외해야 하게 되는 셈이다.

9. 個別 관계

이번엔 接合의 구성원들이 그 接合이라는 복합체 밖의 요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한다.

上位의 폭의조사 : 接合의 구성원이 각각 밖의 요소와 관계를 맺는데 자유가 없다면, 統合의 구성원들이 그 統合 밖의 上位 요소들과 자유로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예컨대, "그는 옛날의 자기 고향을 찾았다"라는 문장에서 "옛날의 자기 고향"이란 統合의 구성원 "옛날"은 "고향"을 통해서 서술어 "찾았다"에 걸리며, "자기"도 "고향"을 통해서, "옛날의 고향"은 "을"을 통해서, "자기 고향"도 "을"을 통해서 發話體의 중심부에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에서 "지구가 돈다"는 "-는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서술적 統合에 걸린다. 이로써 統合의 구성요소가 文章의 上位요소와 관계함에 있어서도 接合의 구성원에 있어서와 같이 부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등의 폭의 조사 : 接合의 구성원 가운데는 얼마간의 대등의 폭을 가진 것이 있다 : 重 또는 輕工業, 市 또는 道民 등. 그리고 統合의 구성원 중에는 대등의 폭이 결여된 것이 있다 : *먹었고 겠다. 이 점 接合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 *놀음 또는 -이.

下位의 폭의 조사 : "첫사랑", "숫처녀"와 같은 接合에서 接頭辭 "첫-", "숫-"을 더 이상 擴大(=수식) 불가능함은, "먹-었"의 "-었"을 擴大(=수식) 불가능함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接合(ab)를, 그 구성원 a 및 b가 다른 요소 c 와 관계를 못 가진다고 정의하면, 統合은 그 반대로 그 구성원이 다른 요소와 꼭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정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統合的擴大요소 가운데는 그 이상 확대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10. 目錄의 특징

이제 우리는 **먹-었**(다), **꾸ㅁ**, **막-걸-리**의 차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사용한 기준은 選擇이 내포하는 代置 또는 抹消可能性——交換(commutation) 試驗과, 單位로서의 태도를 알기 위한 結合의 幅(=內部관계 (1)=接合의 구성원 a가 b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합되고 있는가)의 조사였으며, 이들 기준은 각각 統合/接合의 구분기준으로서는 불충분함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고려치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交換시험 및 結合의 幅의 조사로 부터 나오는 目錄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과 (2)의 예에서 그들의 目錄의 특징을 각각 조사해 보자. (4)의 환경에서 **먹-었**(다)의 **-었-**은 **-겠-**, **-었었-** 등과 交換되며, 이들은 時制, 法, 등 동사어휘소를 限定하는 한정된 수의 요소들의 모임인 동사의 문법적 한정요소들로 된 同合을 이룬다. 한편, "먹-"은 "잡-", "얻-" 등 무제한 수의 동사의 同合을 이룬다. 그리고 이들 동사는 "먹-"과 똑 같이, 文法的 限定요소들로 된 同合의 모든 成員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런데 (2)의 **놀음**을 위와 같은 식으로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본다. 3)의 환경에서 **-음**은 **-이**와 交換되나("좋은 **놀음**이다"; "좋은 **놀이**이다"), 그 **-음**(또는 **ㅁ**)은 **꾸ㅁ**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 交換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동사 중에는 **-음**(**ㅁ**)과 결합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 키(크+이) : *크ㅁ, 크기(크+기) : *크ㅁ, 길이(길+이) : *길음 등등.

먹-었-과 **꾸ㅁ**, **놀음**을 비교함으로써 두 類型의 복합체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 구성요소의 목록의 成員의 수가 적고 많음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제 무제한 목록에 속하는, 統合의 구성요소의 목록과, 接合의 구성요소의 목록의 특징을 살피면, 이 역시 같은 결합상의 차이를 보여 준다. **잘** 뛰(다)의 잘은 **빨리**, **굉장히**, **많이** 등등의 무제한 수의 부사들과 같은 환경에서 交換되며, 뛰(다)의 뛰-는 **먹-**, **자-**, 등등 동사적 同合의 모든 成員들과 交換된다.

그런데 **막-걸-리**, **꽃-꽂-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첫째로 동사적 同合의 모든 성원들이 나타나지 못한다. 가령 **막-걸-리**의 **-걸-**은 **막-잡-이**에서 보는 **-잡-**과, **막-벌-이**에서 보는 **-벌-**과 交換될 뿐 다른 동사와는 交換되지 않는다 : *막자기, *막먹기. 또 "막-"은 가령 "잘-"과 交換되지 않는다 : *잘-걸리, *잘-잡이. **꽃-꽂-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꽃-담-기**는 없으며, **초-꽂-이**가 있는 반면 ***숟가락-꽂이**는 없다.

이상에서 본 바로 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2)의 경우에서 보는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의 規則性과 일반성은 같은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同合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 (1)에 있어서는 각 복합체는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특수한 제한이 따른다.

11. 일반성과 제한성 : 문법적 결합과 어휘적 결합

統合적 결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이고 규칙적임에 반하여 接合적 결합에는 제한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統合적 결합이라고 해서 모두가 일반적이고 규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統合적 결합은 두 요소중 하나가 어휘적이고 다른 하나는 문법적 요소로 된 "먹-었-" 類型의 文法的 統合과, 두 요소가 다 어휘적(또는 어휘적 성격을 띤) 語彙的 結合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먹-었-" 類型의 문법적

결합은 완전히 일반적이고 규칙적인데, 그 반대로 "간 사람"類型의 어휘적 결합은 매우 특수함을 볼 수 있다. 즉 "먹-었-"에서는 동사적 同合의 成員은 모두 文法的 限定요소의 同合의 모든 成員과 남김 없이 결합 될 수가 있으나, "간 사람"에서는 그 결합에 있어서 특수성이 따른다. 冠形이라는 文法的 限定요소(=冠形形어미)를 수반한 동사적 同合의 成員이 모두 名詞적 同合의 모든 成員과 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용한 소음" "명석한 완력"등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반드시 의미적 非共存性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 직접으로 介入하는 영역으로 보여진다. 각 어휘요소는 제각금 자기 고유의 結合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법적 결합이나 어휘적 결합이나 공통점은 두 결합에서 모두 첫째, 部類(classe)를 알고 둘째, 결합의 규칙을 알면 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어휘적 결합에 있어서는 각 어휘單素의 제나름의 결합태도에 대한 知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接合적 결합의 특징은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즉 接合적 결합이 제한적이란 말은 문법적 결합처럼 완전한 일반성과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어휘적 결합에서와 같이 폭넓은 특수성도 나타내지 않는, 말하자면 그 두 極의 中間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은 뚜렷한 구분에서 출발함으로써 비로소, 接合의 創造가 統合의 구성과는 구별되는 同合的活動에 기인함을, 그리고 同合的擴大의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밀히 하는 것이 된다.

12. 국어의 補助動詞

위와 같은 기본지식을 가지고 국어의 補助動詞로 들어가 보자. 국어문법에 나오는 補助動詞는, 관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그 構成要素의 특질과 그 連結方式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複合體이다:

a) "冠形形語尾(ㄴ/은, 는, ㄹ/을)+不完全名詞(수, 듯, 줄, 등)+動詞(있(다), 없(다), 알(다), 모르(다), 하(다), 등)",

b) "接續法(또는 副詞形)語尾(아/어, 지, 고, 게)+動詞(버리(다), 있(다), 하(다), 아니하(다))",

c) 기타: "-ㄹ/을까 보(다)", "-ㅁ/음직 하(다)", 등.

그리고 이들 복합체는 모두 動詞語幹 바로 뒤에 붙는다. 이 점 時制語尾와 같다: (먹)**을수있**(다), (먹)**고있**(다), (먹)**을까보**(다), (먹)**음직하**(다) 등. 그리고 이들 복합체는, 時制語尾(았/었, 겠…등)가 그 앞의 動詞的語彙素의 의미를 언제? 라는 관점에서 限定하듯이 역시 그 앞의 動詞的語彙素의 뜻을 갖가지로 限定한다: 否定(-지 아니하다), 可能(-ㄹ수있다) 등. 주의할 일은 위에서 "冠形形語尾", "不完全名詞"등으로 복합체의 구성요소의 이름을 붙인 것은 국문법의 관례와 편의에 따른 것 뿐이며, 실제로 그들이 그 명칭대로의 部類곧 同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면 위의 10)에 따라서 이들 복합체의 구성요소의 목록의 특징을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 구성요소의 結合이 一般的인가 또는 制限적인가를 살피기로하자.

13. 補助動詞의 구성요소의 目錄의 특징

국어 補助動詞의 구성요소의 목록의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위의 13의 a의 예 다시 말해서

(1) (i)의 예에서 보류 했던 (iii) 및 (iv)의 예 : (하)ㄹ뻔(도)하(다), (하)ㄹ수(도)있(다)와 2)의 예에서 보류했던 (iii)의 예 : (하)는이(도)있(다)를 비교해 보자.

먼저 (2)의 (iii)의 예 : "(하)는 이(도) 있다"를 (3)의 문맥 "(~)을・・・다", 에 넣어서 각 구성요소의 目錄을 살피면 :

첫째, 冠形形語尾 "-는"은 "-ㄹ", "ㄴ"과 代置되며, 이들 語尾는 그 앞의 어떠한 動詞語幹과도 結合되어 그 다음의 구성요소 "이" 뿐 아니라 "이"에 代置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남김 없이 結合된다.

둘째, 맨 끝의 구성요소 "있-"도 그 앞의 요소와의 뜻의 연결이 되는 한 다른 요소로 代置됨으로써 叙述語의 구실을 한다. 즉 :

$$(17)\ \text{그것을}\left\{\begin{matrix}\text{하}\\ \text{먹}\\ \text{잡}\\ \vdots\end{matrix}\right\}_{(a)}+\left\{\begin{matrix}\text{ㄴ/은}\\ \text{는}\\ \text{ㄹ/을}\end{matrix}\right\}_{(b)}+\left\{\begin{matrix}\text{이}\\ \text{사람}\\ \text{남자}\\ \vdots\end{matrix}\right\}_{(c)}(\text{도})+\left\{\begin{matrix}\text{있-}\\ \text{없-}\\ \text{가-}\\ \vdots\end{matrix}\right\}_{(d)}\text{다.}$$

위의 (a)와 (b)의 결합은 (a)가 어휘적요소, (b)가 문법적요소이므로 문법적 결합(위의 12 참조)으로서 일반적이며 규칙적이다. 다음 (a)와 (b)의 結合體와 (c)과의 結合은 어휘적 결합(위의 12 참조)으로서 그들 두 요소간에는 의미적인 양립성뿐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 개입되는 매우 특수한 결합이다. (c)와 (d)의 결합이 어휘적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각 구성요소의 결합은 (2)의 "먹-었(다)", "잘 뛰(다)"와 같은 統合을 이룬다.

이제 (1)의 (iii)(하)ㄹ뻔(도)하(였다) 및 (iv)((하)ㄹ수(도) 있었(다))의 복합체=補助動詞의 예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보자.

우선 (iii)의 복합체 "(하)ㄹ-뻔(도)-하/해(였/ㅆ다)"에서 우리가 이미 위의 1(統合과 接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복합체의 마지막 요소는 (4)의 문맥에서 "하(다)"뿐으로 制限됐었다 : "그것을 하-ㄹ-뻔(도)-해-ㅆ-다". 그럼 나머지 요소 "-ㄹ-" 및 "-뻔-"은 어떤가. 첫째로 "-ㄹ-"이 "-ㄴ/은", "-는-"과 代置됨으로써 "-뻔-"과 결합될 수 없다. (*그것을 한뻔도 했다" ; "그것을 하는뻔도했다".) 한편 "-뻔-"과 결합할 수 없었던 "-ㄴ/은", "-는-"은, "-듯-"과는 결합되며, 이 "-듯-"은 "-뻔-"이 "-하-"(물론 과거어미를 가짐이 특색이지만)와만 결합되는데 반해서, "-싶(다)"와도 결합된다. "그것을 하ㄴ/는 듯하다" 그런데 또 "-듯-"을 "-줄-"로 代置하면 "-싶(다)"나 "-하(다)"와는 결합될 수 없고(*그것을 하ㄴ/는 줄 하(싶)다), 반드시 "-알모르(다)와만 결합된다.

"(하)ㄹ수(도) 있/없(다)"가 "(하)ㄹ뻔(도)해(ㅆ다)"와 같은 類型의, 目錄上의 특징(=結合規則의 制限)을 가지고 있음은 잠시 들여다 보기만 하여도 알 수 있음직 하다. 이들 두 복합체를 위의 (2)의 (iii)의 복합체(=統合) ("그것을 하는이(도) 있(다)")와 같은 식으로 도표화하고 검토하면 :

(18) 그것을 $\begin{array}{c}\text{(a)}\\ \left\{\begin{array}{c}\text{하}\\ \text{먹}\\ \text{잡}\\ \cdot\\ \cdot\\ \cdot\end{array}\right\}\end{array}$ + ㄹ／을 + $\begin{array}{c}\text{(b)}\\ \text{수(도)}\end{array}$ $\begin{array}{c}\text{(c)}\\ \text{있(었)}\end{array}$ $\begin{array}{c}\text{(d)}\\ \text{다".}\end{array}$

(a)와 (b)의 결합은 (2)의 (iii)의 복합체에서 본바와 같은 문법적 결합이 될 수가 없다. (2)의 (iii)에서는 관형형의 모든 어미(ㄴ／은, 는, ㄹ／을)와 동사어간이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a)와 (b)의 결합이 문법적결합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ㄹ／을" 요소가 冠形形語尾가 갖는 "時制" 및 "冠形"이라는 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요소는 그 앞에 오는 동사어간과는, 그 홀로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2)의 (iii)의 경우 처럼 (a)와 (b)의 결합체와 (c)의 요소와의 어휘적결합, 또 나아가서 (c)와 (d)와의 어휘적결합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복합체 "(하)ㄹ수 있／없(다)", "(하)ㄹ뻔(도)해(ㅆ다)"는 "(하) $\left\{\begin{array}{c}\text{ㄴ}\\ \text{ㄹ}\\ \text{는}\end{array}\right\}$ 듯(도) $\begin{array}{c}\text{하}\\ \text{／}\\ \text{싶}\end{array}$ (다)", (하) $\left\{\begin{array}{c}\text{ㄴ}\\ \text{ㄹ}\\ \text{는}\end{array}\right\}$ 줄(도) 알／모르(다)와는 다른 類型의 接合이며, (뒤 15 참조) 接合이란 점에서는 (1)의 (i)"꾸ㅁ(추ㅁ)", (ii)"놀음(이)", (v)"막-걸-리(막-잡-이)" (vi)"꽃-꽂-이"와 다를 바 없는 接合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14. 冠形形語尾의 본질

위 13에서 관형형어미가 "時制"와 "冠形"이라는 두 가지 구실을 갖는것임을 들었다.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形態적으로 쪼갤 수 없는 이 冠形形語尾(ㄴ／은, 는, ㄹ／을)가 국어에서 분명히 따로따로 나타나는 (예 : 관형사 "이", "그", "저",…; 사제어미 "-었-", "-겠-",…)두 가지의 內容——時制와 冠形——을 가진 따라서 두 單素(monème, moneme)의 "시니피앙"의 amalgam이라는 점을 보아 놓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이 "時制" 및 "冠形"이라는 두 單素는 모두 限定된 수의 문법요소이며, 그 기능은, 그 앞에 오는 모든 動詞語幹의 뜻을, 하나는 때라는 관점에서 限定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冠形語化하는, 소위 文法的限定要素(modalité, grammatical modifier)라는 점 도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특히 "(하)ㄹ수(도) 있／없(다)" 및 "(하)ㄹ뻔(도)해(ㅆ다)라는 接合을 "(하) $\left\{\begin{array}{c}\text{ㄴ}\\ \text{는}\\ \text{ㄹ}\end{array}\right\}$ 듯(도)하(다)", "(하) $\left\{\begin{array}{c}\text{ㄴ}\\ \text{는}\\ \text{ㄹ}\end{array}\right\}$ 줄(도) 알／모르(다)"와 구별하는데,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위의 14에서 "(하)ㄹ수있／없(다)의 "-ㄹ-"이 앞의 動詞語幹과 文法的結合을 이루지 못함을 보았으므로, "(하) $\left\{\begin{array}{c}\text{ㄴ}\\ \text{는}\\ \text{ㄹ}\end{array}\right\}$ 듯(도)하／싶(다)", "(하) $\left\{\begin{array}{c}\text{ㄴ}\\ \text{는}\\ \text{ㄹ}\end{array}\right\}$ 줄(도)알／모르(다)"에서의 {ㄴ／은, 는, ㄹ／을}을 살피기로 한다. 문제는 이 冠形形語尾가 그 앞의 동사어간과, "(하) $\begin{array}{c}\text{(a)}\\ \left\{\begin{array}{c}\text{ㄴ}\\ \text{는}\\ \text{ㄹ}\end{array}\right\}\end{array}$ + $\begin{array}{c}\text{(b)}\\ \text{사람}\\ \text{남자}\\ \text{여자}\end{array}$ $\begin{array}{c}\text{(c)}\\ \text{(도)}\end{array}$ + $\begin{array}{c}\text{(d)}\\ \text{있다"}\\ \text{없다}\\ \text{가다}\end{array}$ 와 같은 統合에 있어서와 똑 같이 文法結合을, 더 자세히는, 이들 어미가 時制 및 冠形이라는 두 單素(=文法的限定要素)의 자격으로 동사어간과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데 있다. 이미 위의 14에서 본 바와 같이 이 統合

은 (a)와 (b)의 結合이 文法的結合이며 (a)와 (b)의 結合體와 (c)와는 어휘적인 결합이다. 즉 (a)의 위치에 나따나는 모든 동사어간과 (c)의 위치에 나타나는 모든 명사는 意味적인 兩立이 가능한 한 (b)를 사이에 두고, 共存할 수 있다. 이것은 곧 冠形詞 "이, 그, 저"의 結合의 폭과 같은 것임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b)의 冠形形語尾가 "時制"외에 "冠形"이라는 單素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c)와 (d)의 결합도 (a)와 (c)의 결합과 같은 어휘적결합이다. 그러면 복합체 "(하)$\overset{(a)}{\overset{(b)}{\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듯(도) 하(다)" 와 (하)$\overset{(a)}{\overset{(b)}{\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overset{(c)}{\text{줄}}$(도) $\overset{(d)}{\text{알}}$/모르(다)에서 (a)와 (c)의 결합, (c)와 (d)의 결합이 어휘적결합일까? 만일에 (a)와 (c)가 어휘적결합이라면, (c)의 위치에서와 "-듯-" 또는 "-줄-"에 代置될 수 있는 어느 한 요소만이라도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3)의 文脈 "(~)을 • • • 다"가 文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 *"그것을 하$\overset{(a)}{\overset{(b)}{\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overset{(c)}{\text{줄}}$(것, 바, …)(도)하다", *그것을 하$\overset{(b)}{\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overset{(c)}{\text{듯}}$(것, 바, …)(도) $\overset{(d)}{\text{알}}$/모르다". 그러므로 (b)는 冠形의 單素가 아니고 다만 時制單素일 뿐이다. 또 (d)의 "-알/모르다", "-하다"를 각각 다른 요소로 代置하여도 같은 文脈 (3)에서 말이 成立되지 못한다 : *"그것을 하$\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줄(도)하다…". *"그것을 하$\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듯(도)알다(…)".

이제 비로서 우리는 "(하)ㄹ수(도) 있/없(다)", "(하)ㄹ뻔(도)해(ㅆ다)"가 "(하)$\left\{\begin{matrix}\text{ㄴ}\\ \text{ㄹ}\\ \text{는}\end{matrix}\right\}$듯(도) 하/싶(다)", "(하)$\left\{\begin{matrix}\text{ㄴ}\\ \text{ㄹ}\\ \text{는}\end{matrix}\right\}$줄(도) 알/모르(다)"와 구별되는 接合임을 알게 된 것이다. 구별된다는 것은 形態上 冠形形語尾로 보이는 요소가 "(하)ㄹ수(도) 있/없(다)", "(하)ㄹ뻔(도)해(ㅆ)(다)"에서는 接合의 구성원임에 반하여 "-듯(도)싶/하(다)", "-줄(도)알/모르다"에서는 冠形形語尾는 統合(=動詞語幹+時制)의 구성원이란 점이다.

15. 다른 補助動詞

13의 b)의 예를 살펴 보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類型은 動詞語幹 뒤에 붙는 接續法(또는 副詞形) 어미(-아/어, -게, -지, -고)+動詞(-버리다, -있다, -아니하다, -하다, -되다, 등)의 복합체 — 아직은 복합체라 부르기엔 이르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를 말한다 : "먹어(도)버리(다)", "먹게(도)하(다)", "먹게(도)되(다)", "먹지(도)아니하(다)", "먹고(도)있(다)", 등. 이들을 (4)의 文脈 "~을 • • • 다",에 집어 넣되 그 왼편에는 진짜 접속법어미가 든 문장을, 놓고 비교하기로 한다(최현배 1929:297) :

(19) (i) 닭을 잡아(서) 몸을 보니…
고기를 낚아서 마을로 가더라.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마을로 갔다.
⋮

떡		먹
·		·
·		·
·	을	·
·		·
·		·

-어-보/버리ㄴ다.

(ii) 밥 좀 먹게 조용해라.
강 건너게 배좀 대라.
⋮

너		만나
나		
방		비
무	을	·
		·
		·

-게-되/하겠다.

(iii) 난 떡은 먹지만 밥은 안 먹는다.
난 술은 먹으나 떡은 못 먹는다.
⋮

떡		먹
밥		짓
·	을	·
·		·
·		·

지-아니하ㄴ다.

(iv) 기차를 타고 거기 간다.
밥을 먹고(서) 여기 왔다.

밥		먹
떡	을	빚
·		·
·		·
·		·

-고-있다.

왼편의 진짜 접속법어미로 연결된 문장부터——. i), ii), iii), iv)에 나오는 진짜 접속법어미는 그들이 이끄는 叙述적 統合과 主節과의 관계를 指示해주는 接續的인 機能 單素이거나, 대등관계를 나타내는 대등표지이다. 이 機能單素 또는 대등표지는 語彙素(Martinet 1967b: §1. 1-9)에 대립되는 形態素 곧 文法的요소다. 이들 文法的요소가 이끄는 統合들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고("닭을 잡-", "밥좀 먹-"…등)과 같은 語彙素와 形態素의 混合으로 된 連結體이다. 이들 統合을 단순한 語彙와 구분짓기 위하여 "시니피에"라 부르고져 한다. 각각의 統合(體)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되어 있고, "경험"에 대응되는 言語적사실의 내용면인 "시니피에"는 화자가 경험을 言語化할 때나 청자가 화자의 경험을 言語를 통해 再構할 때나 다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니피에"(=統合)와 접속적기능단소의 결합은 어휘소와 문법요소와의 결합과 같이 文法的結合을 이룬다. 이 文法的結合體는, 역시 "시니피에"라 부르고져하는, 접속적기능단소 또는 대등표지에 의해 연결되는, 또 하나의 主節 또는 對等節의 서술적 統合"(내가) 몸을 보…", "(너희들) 조용해"와 "시니피에의 結合"을 이룬다. 이 "시니피에의 結合"은 어휘적결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은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예에 따라 진짜 접속법어미(=접속적 기능단소 또는

대등표지)에 의한 연결체와, 동사어간+補助動詞의 연결체와를 비교하고 그 結合上의 특징——복합체의 구성요소의 目錄의 특징——을 살펴 보자. 번 잡을피하기 위해 (iii)의 예를 보자. 대등표지 "(먹)-지(• • •)안" 또는 "(으)나"의 왼편의 "시니피에"를 (a), 대등표지를 (b), 그 오른편의 "시니피에"를 (c)이라 하자. 마찬가지로 動詞어간을 (a)접속법어미형태를 (b), 다음의 동사어간형태를 (c)이라 하면 :

(i)	(ii)	
(20) (a) (b) 난 떡은 먹지(만),	떡 (a)먹	
(c) 밥은 안먹는다.	잠 을 자	
•	•	
•	•	
•	•	(b) (c) -지(도)-않는다
(a) (b) 난 술은 먹으나,	꿈 을 꾸	
(c) 과자는 안먹는다.	•	
•	•	
•	•	
•	•	

(i)의 (a)의 환경에 나타나는 "시니피에"는 (b)(=대등표지≪相反的인≫)를 사이에 두고(c)의 "시니피에"와 의미적으로 共存할 수 있는 限 수 많은 다른 "시니피에"로 代置되고, 역으로 (c)의 "시니피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다. 또 (b)(=대등표지)는 수가 제한 되어있긴 하나 다른 요소(예 : -으나)로 대치된다. 그리하여 이들 (a), (b), (c)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는 완전한 상호 결합이 가능하다. (a)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니피에"와 (b)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소(=대등표지)와의 결합을 문법적 결합이라고 부른다면, 이 문법적결합체들은 (c)에 나타날 수 있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에의 결합"을 이룬다. 반면 (ii)는 어떤가. (ii)의 (a)의 모든 동사어간은 (b)의 단 하나 밖에 없는 요소 "-지"와 결합된다. "-지"가 代置不能의 요소라는 사실은, 이 요소가 문법적요소가 되기에는, 아무리 문법적요소의 수의 제한성을 고려하더라도,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a)와 (b)의 결합은 문법적결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a)와 (c)사이에 "시니피에의 결합"이 認定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b)의 요소(="-지")가 연결어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b)의 요소("-지")는, 動詞어간 뒤에 붙는 복합체(=接合)의 한 구성요소가 될 뿐이다.

(i)의 "떡(밥…등)을 먹(잡…등) 어/아(도) 보-/버리-ㄴ다", 의 경우에서도 사정은같다. "떡을 먹고 보-/버리-ㄴ다", *"떡을 먹지 보-/버리-ㄴ다", 는 또 말이 되지 않으며 "떡을 먹어-다음에는 -보/버리(ㄴ다)" 외의 다른 요소를 代置할 수가 없다. 이 (i)의 경우의 증명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증명방법과 다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곧 동사어간 뒤에 붙는 구성요소의 代置可能性과 그 代置된 각각의 구성요소 상호간에 남김없는 결합이 가능한가에 의한 증명방법이다.

16. 接合(=補助動詞)의 증명방법의 요약

위의 13에서 비롯하여 15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국어의 補助動詞라는 복합체가 接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사어간 뒤에 붙는 요소로 부터 직접 그 증명을 시작하지 않고 동사 어

간을 포함함으로써, 어디서부터가 接合(=補助動詞)인가를 증명하여 왔다. 다만 위 15의 (a)의 경우 : "떡(밥…)을 먹(잡…)아/어 보-/버리-ㄴ다"에 이르러서는 직접 동사어간 뒤에 붙는 요소로 부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동사어간을 포함함으로써 接合여부를 따지기 시작한 이유는, 위의 13 및 14에서 길게 논한 바 있는, 동사어간뒤에 冠形形어미로 시작하는 요소들의 집합 : "(…)을 하ㄹ수(도)있(다)", "(하)ㄹ뻔(도)해(쓰다)"와 "(…)을 (하) $\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 듯(도) 하/싶(다)", "(…)을 (하) $\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 줄(도) 알/모르(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冠形形어미는 "時制" 및 "冠形"이라는 두 單素의 "시니피앙"의 amalgam이라는 중요한 사실 때문에, 위의 결합에서 그 語尾가 두 單素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가, 또는 그 중 한 單素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둘 중 어떤 單素의 구실도 하고 있지 않은가, 를 꼭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그리고 그 방법을 동사어간 뒤에 冠形形어미가 붙지 않은 다른 복합체 "(하)고(도)있/없(다)" 등에 그대로 연장한 것이, 위의 13에서 14를 거쳐 15에 이른 우리의 조사였다. 즉 동사어간을 (a)이라하고, 그 다음에 붙는요소들을 (b), (c)…라 할때, (b)가 冠形形어미인 경우에서, "-ㄹ-어미 하나뿐인 경우에는 (a)과 (b)의 결합이 문법적결합이 되지 못함으로써, (c)("-수-" 또는 "-뻔-")과의 어휘적 결합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b)(-ㄹ-), (c)(-수-, 또는 -뻔- 등), (d)(-있/없-, -해-)를 接合이란 하나의 복합체의 구성요소로 결론할 수 있었다. 반면 (b)가 冠形形어미 $\left\{\begin{matrix}\text{-ㄴ/은-}\\ \text{-는-}\\ \text{-ㄹ/을-}\end{matrix}\right\}$ 와 모두 나타내는 경우 : (하) $\left\{\begin{matrix}\text{ㄴ}\\ \text{는}\\ \text{ㄹ}\end{matrix}\right\}$ 듯(또는 "줄") 하/싶 (또는 알/모르)(다)"의 경우에서는 (a)와 (b)가 문법적결합을 나타내나, (a)와 (b)의 결합체가 (c)(-듯- 또는 -줄-)와 어휘적 결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b)의 冠形어미는 어간에 관계되는 "時制"라는 문법적 한정요소일 뿐, "冠形"이란 單素가 아닌 동시에, (c)("-줄-", "-듯-") 및 (d)("-하/싶-", "-알/모르-")가 接合의 구성요소임을 알았다. 이런 방법을 冠形어미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하)고 있-, (하) 지 않-)에도 연장하여, 이번에는 (a)와 (b) 그리고 (a)×(b)의 결합체와 (c)과의 결합에 대응하는, 접속법어미를 중간에 둔 "시니피에(=叙述적統合)의 결합"과 대비시켜, (a)와 (b)의 결합이 문법적결합인가, 그리고 (a)×(b)의 결합체와 (c)과의 결합이 "시니피에의 결합"인가를 알기 위하여 (b)의 代置가능성 여부와 (c)의 代置可能性여부, 그리고 (a)와 (b)와 (c)의 각 代置요소간의 남김없는 결합의 가능성여부라는 기준으로써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런 가능성의 결여때문에 (b)와 (c)는 接合이란 복합체의 구성요소임을 알게됐다. 이렇게 기계화된 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의 15의 (i)에서 행한 방법이었다 : "떡(밥…등)을 먹(잡…등)아/어(도) 보/버리(ㄴ다)"에서, 어간을 제외한 요소들, 즉, (b)와 (c)의 각 요소의 代置可能性 및 그들 대치된 요소들간의 남김없는 결합가능성여부라는 기준으로써 (b)와 (c)가 接合의 구성원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은, 동사어간

뒤에 冠形어미가 붙는 경우의 복합체에 대해서도, 冠形어미가 "時制"와 "冠形"의 두 單素의 "시니피앙"의 amalgam이란 사실을 알고 출발한다는 조건에서, 有効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또 기타 接合 : (하)ㄹ까보(다), (먹)음직하(다), 등의 복합체가 接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상에서 우리는 統合/接合의 구분의 일반기준에 이어 그 기준을 국어의 보조동사에 적용하는 첫 關門에 들어섰다. 지면관계로 그 본격적인 적용은 稿를 달리하여 이 글의 속편에 해당하는 "국어의 보조동사"——統合/接合의 구분의 일반기준의 적용——에 미룰 수 밖에 없다. 이 속편에서 우리는 국어의 보조동사의 기능을 살피게 될 것이다. 거기서 국어의 보조동사가 動詞語幹을 限定하는 文法的限定要素(modalité, grammatical modifier)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보조동사의 구성원(=接合의 구성원)과 보조(또는 特殊)助詞 "-도, 는, 만…"의 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 아래 이들 特殊(또는 보조)조사라는 單素가 機能的으로 여하히 分類되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들 特殊(또는 보조) 助詞가 動詞核과 結合할 때 취하는 변이형태("-기도하-", "-기만하-," "-기는하-"…)를 파악한 다음, 이들 보조조사(이/가, 은/는 을 포함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보조동사가 接合이 됨을 재확인한 다음 약 30개의 현대국어의 보조동사의 일람표에서 動詞語幹과 보조동사의 結合의 幅(=下位의 幅)을 조사하고 結合의 幅의 유사성과 그 用法 사이에 일치점을 발견함으로써 이에 따라 보조동사를 分類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시니피에"의 角度에서 본 統合과 接合의 結合상의 차이점을 살피고 그 經濟的 취급방법이 무엇인가를 결론내리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보조동사의 일람표에 나오는 使役·被動등 "態"에 관하여 이 態的要素가 국어에서 볼 때는, 機能單素(monème fonctionnel)가 아니라 분명한 文法的限定요소(modalité)임을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統合/接合의 구분의 일반기준을 佛語의 動詞形式(=動詞句)을 통하여 간략하게 재확인함으로써, 이 글을 끝맺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최현배. 1929. 우리말본. 서울 : 정음사.
한글학회. 1965. 새한글사전. 서울 : 홍자출판사.
허 웅. 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造語法의 叙述方法과 몇가지 문제점. 東亞文化, 六輯.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Mahmoudian, Mortéza. 1975. A propos de syntagme et synthème. La Linguisique, 1975.
Martinet, André 1966. L'autonomie syntaxique. Méthodes de la grammaire, tradition et nouveauté. Liège.
_____. 1967a. Syntagme et synthème. La linguistique, 1967.
_____. 1967b. E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èrale. Paris: Armand Colin.
_____. 1968a. Composition, dérivation et monémes. Festschrift zum 60 Geburtstag von Hans Marchand. La Haye.
_____. 1968b. Mot et synthème. Lingua 21.
_____. 1971. Functional View of Language. Oxford: Clarendon.
_____. 1973. Conventions pour une visualisation des rapports linguistiques. La Linguistique, 1973.
_____. 1975. Studies in Functional Syntax. (Etudes de syntax fonctionelle.) München.

RÉSUME

Syntagme et Synthème

—Critères de distinction et leur application: préliminaires des auxiliaires coréens—

Hyong-Dal Pak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Cet article est la première partie d'une étude sur la forme verbale[1] dite *auxiliaire*, du coréen parlé. Il se fonde sur la méthode de syntaxe fonctionnelle developpée par André Martinet, il se fonde aussi sur la distinction syntagme/synthème proposée et élaborée par Martinet, et sur le critère de leur distinction précisé par Mortéza Mahmoudian.

Après une présentation du critère de distinction fait par Mahmoudian(0-11), nous com-

[1] Dans le sens proposé par André Martinet (voir Martinet 1971:126; Langue et fonction, p. 176).

mençons dans 12 à dégager les auxiliaires(=synthèmes), en les classant, d'après les types combinatoires des constituants(=des monèmes conjoints) des auxiliaires sur le plan formel, en trois types:

I⁰ R.V.(radical verbal)+forme de monème fonctionnel ou de coordinatif (/-a-/ou/-ò-/, /-ke-/, /-ci-/, /-ko-/)+forme de verbe(/-pòli-/, /-iT-/ou/-òp-/, /-ha-/, /-aniha-/, etc.);

2⁰ R.V.+forme de modalité d'《épithète》(/-n-/ou/-ïn-/, /-nïn-/, /-l-/ou/-ïl-/, etc.) + forme de nom défectif(/-su-/, /-kòT-/, etc.) ou de modalité d' 《intérrogation》(/-ka-/) + forme de verbe(/-iT-/ou/-oP-/, /-ha-/, /-kaT-/, /-po-/, etc.), et

3⁰ R.V.+forme de modalité de 《nominalisation》(/-m-/ou/-ïm-/)+/-cik-/+/-ha-/.

Nous y constatons, par l'épreuve de la commutation et par l'examen des latitudes combinatoires, des restrictions particulières aux combinaisons des constituants de chaque type d'auxiliaire(13).

Pour attirer l'attention sur le point important jusqu'ici négligé dans l'analyse monématique de la forme dite 《épithétique》, nous insistons sur son caractère d'amalgame, sur le plan du signifiant, de modalité de 《temps》 et de celle d'《épithète》; nous distinguons dans 2⁰ deux types de forme épithétique: celui de commutabilité qui ne correspond en effet qu'aux modalités de temps(passé, présent, futur, etc.), en entretenant le rapport de détermination avec le radical verbal qui le précède, et celui de non commutabilité qui n'est qu'un des constituants du synthème(14).

Dans 15 nous traitons les auxiliaires du type 1⁰ et 3⁰. Nous examinons par l'épreuve de la commutation et des latitudes combinatoires si la combinaison du radical verbal avec la forme de monème fonctionnel, de coordinatif et de modalité de 《nominalisation》 est de caractère *grammatical*,[2] ce qui revient à examiner s'il y a la *combinaison lexicale* entre le radical verbal et la forme du verbe qui suit la forme de monème grammatical. Cet examen nous permet de dégager l'auxiliaire: dans 1⁰ et 3⁰, est auxiliaire tout ce qui suit le radical verbal.

Nous résumons dans 16 comment démontrer les synthèmes(=les auxiliaires du coréen): si nous nous gardons d'oublier que la forme épithétique est un amalgame, sur le plan du signiant, de modalité de temps et de celle d'épithète, et que, comme dans le type 2⁰, la forme épithètique commutable devant l'auxiliaire(=le synthème) est une variante du signifiant de chaque modalité de temps, alors que celle de non commutabilité dans le même contexte est un des constituants(=monème conjoint) du synthème(=l'auxiliaire), nous pouvons sans aucune difficulté dire que les synthèmes(=les auxiliaires), qui se placent après les radicaux verbaux en entretenant le rapport de détermination, peuvent être démontrés par l'examen des restrictions particulières aux combinaisons des constituants de chaque complexe auxiliaire.

---

[2] Dans le sens proposé par Mahmoudian (voir Mahmoudian 1975:63-64.)